

「칸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5회)

朴魯哲

(二)印度教 中心思想概觀

[1]種姓階級

『칸디』는 印度의唯一한 四種姓階級에對하여 다음과 가티말하얏다

『四階級은 언제든지 神의創造에 奉仕하기爲하여 생긴것이니 그第一의 波羅門僧族은智識으로섬기고 第二의 刹帝利(크샤-트리아Kshatriy)王族(武士階級)은保護力으로섬기고 第三의平民은 農商으로서섬기고 第四의奴隸는 筋肉勞動으로서 섬긴다 이럼으로 나는嚴正한 『吠陀』의 意味에잇서四階級을밧는다』라고 이에對하여 먼저印度上古時代의 種姓階級에關한 그區別을 간략히 들고저한다

古印度의文物을 天下에자랑케된것은 五部落을形成한 農牧의民族으로 보게된다 上古의印度에잇서서는 所謂仙人層의 特殊한種姓이잇스니 이는古仙(神仙,僧仙,帝仙)及平民,武士等の區別로서 『仙』『士』『僧』『平民』간에 何等의差別이업다고한다 이시대는 肉食을 自由로하며 航海를닐리하며 쏘는 祭神及 歌舞를힘쓰되 그가튼 苦涯의 生活을 보내지안헛고 쏘는 不自然한 階級制度라든지 不健全한 束縛的規律에 매여서生活하지안코 한갓作歌,儀式,技舞에힘쓰며 王士,武人,土僧,仙人간에 何等의差等이업다고한다

그後에와서 비로소 種姓을區別하게된바 種姓의意味를 썩은『와나』(Varna 種姓의原語)란말은 곳『色』의義니 이는 본이『白色』과『黑色』을 區別하는 것으로 白人과黑蠻을 意味함이니이리하여 白黑의二大階級이 發生됨으로부터 印度民族과 非印度民族의區別이잇게되엇다 다시그後에이르러 種姓의 職分이確實히區別되매 波羅門은 作歌者를 意味함ियो 『크샤-트리아』(刹帝利)는 王士姓을意味하여 당시諸仙은 『強』하다는意義로서 그種姓에適宜한말이되엇고 維富羅(웨이-푸라Vipra)는 僧侶姓을 意味하여 그種姓의『賢』을 뜻한바 이역諸大神에 으뚝된다는 義로볼수있다. 그리더니 그後代에이르러 다시四種姓의 그職

分을 區別하기爲하여 僧侶, 王士, 平民을 三姓으로分하여 이를白人의班列에 두어『再生族』(輪回說에依한再生)으로 待遇하고 그밖에非印度人(卽白人아닌種姓)을 모도奴隸로삼아 首陀의姓을주었다. 이리하여 首陀姓은『一生族』(輪廻나『아푸타라스』에關하지안코단지此生에만限한다는意義)이라하여 輕蔑이보아 賤待하기짜이업섰다. 그후사뭇내려오면서 婆羅門僧族의專■的橫壓은이로말할수 업시甚하얏다. 그러듯確固不變의 四種姓의鐵則도佛敎와및 新印度敎의 無差別의影響으로서 얼마큼그陋習을 革辟하엿스되 그四階級の法則만은 여태도固守不變하여 全然히革廢할생각을 一般으로는 가지지안는듯십다. 무엇보담도 印度敎의敎理에依하여서의 四階級을拒否하지안코 잇는중이다 그러나 그四種姓에關한 區別만을 拒否하는중이다. 다시말하면 印度敎敎徒에잇서서는 그四種姓에對한 社會階級에는 區別를두지안는모양갓다. 『칸디』역시 四階級の法則만은 嚴守하되그階級の區別은 拒否하엿다. 『칸디』는말하엿다.

『만일婆羅門이 自己가使用하는 奴隸(首陀)와함께 食事함을 拒否한다면 이는印度敎의信者로서 自己의信仰을誤信하는데 지나지안는다. 이럼으로 階級간에 優越의概念을두지안는다. 人類는 맘대로 自己의階級을 變할수도업스니 自己의階級을 服從하지안흠은 그遺傳의法則을 無視하는것이다. 그러나 社會階級에 區別을두는것은 그宗教의敎理를 無視하는 不當의自由다』라고 하엿다.